

아오시마섬 주변의 기암군(‘도깨비의 빨래판’)

아오시마섬을 둘러싸듯 바다로 뻗어 있는 모양의 기암군은 ‘도깨비의 빨래판’으로도 불립니다. 멀리서 보면 커다란 빨래판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. 기암군은 2,400 만 년 전부터 200 만 년 전에 걸쳐 해저에서 모래와 진흙이 교차로 축적되면서 생성되었습니다. 층상을 이루는 암반이 지각의 변동과 융기로 인해 조금씩 기울어진 상태에서 육지가 되었습니다. 이 암반이 과도에 씻겨나가면서 부드러운 이암층이 더욱 단단한 사암층보다 빠르게 침식되었고 암반에는 줄기가 형성되었습니다. 미야자키의 해안에서는 아오시마섬에서 남쪽 방향의 도사키하나곶을 지나 긴차쿠섬까지 8km 에 이르는 기암군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오시마섬의 ‘도깨비의 빨래판’은 일본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.